

# 와인잔의 세계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 와인잔

“와인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은 와인잔을 세제도 안쓰고 물로만 닦는다면서요. 진짜 그래요?”

대상을 불문하고 마니아의 세계는 깊고도 오묘하다. 아니 사실 그 집단에 속한 소수의 이들을 제외하고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와인 역시 다르지 않다. 식당에 갈때도 와인잔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는가 하면, 다 마신 와인잔에 아직 향이 남아 있다며 코를 박고 있는 걸 이해해주진 쉽지 않다.

사실 집이 아닌 곳에서 와인을 마실 때의 가장 큰 불만은 와인잔일 때가 많았다. 고급잔을 원하는게 아니라 그 위생상태 때문이다. 희미한 물 얼룩이아 그러려니 해도 덜 지워진 립스틱 자국이나 와인의 향보다 먼저 튀어나오는 음식 냄새는 최악이다. 특히나 레드와인을 선호하는 우리나라에선 고기류와 많이 먹다보니 기름과 냄새가 문제다.

교과서적으로는 와인잔은 물로만 세척하는게 맞다. 아무리 잘 헹군다고 해도 일부 남



와인잔은 품종이나 지역이나 종류가 다양하다.

/와인스펙테이터

아있는 세제 성분이 와인의 풍미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스파클링 와인이라면 보글보글 올라와야 할 버블이 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수도 있다.

근데 원칙을 지키려면 조건이 있다. 와인잔에 얼룩이 가능한 없도록 하거나 생기자마자 바로 세척을 한다. 또 뜨거운 물로 헹구고, 헹구고, 또 헹군다. 가능하다면 밤새 따뜻한 물에 담궈놓아도 좋다. 레스토랑이든 집이든 지키기 너무 까다로운 조건이다.

차선책은 성분이 순하거나 무향의 세제를 사용하는 것이다. 양도 가능한 적게 해서 말이다. 이 역시 교과서적으로는 기름기나 립스틱 자국을 없애기 위해 세제를 사용한다면 더 이상 헹굴 수 없을 때까지 헹구라고 되어 있지만 말이다.

마니아에서 일반 레벨로 다시 내려가 기본

문제를 풀어보자.

먼저 와인은 꼭 와인잔에 따라 마셔야 하나. 답은 ‘예스(yes)’.

와인은 눈으로 보고, 코로 향을 맡고, 그리고 마신다. 색상과 향은 와인의 성격은 물론 품질까지 많은 것을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다. 물잔이나 플라스틱잔에 따라 놓쳐버리긴 아깝다. 투명한 와인잔의 유리야말로 와인 본연의 색을 잘 나타낼 수 있고, 깊고 둥근 볼은 향을 잘 맡을 수 있게 해준다.

그렇다면 품종이나 지역 등에 다양한 와인잔을 모두 구비해야 하나. 이에 대한 답은 ‘노(no)’.

일반적으로 레드 와인잔, 화이트 와인잔, 스파클링 와인잔 하나씩만 있다면 와인의 맛을 잘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다.

먼저 레드 와인을 마시기 위한 보르도 잔

이다. 가장 많이 봤을 보편적인 잔으로 둥근 형태로 입구와 볼 부분이 넓다. 와인의 향을 풍성하게 느낄 수 있고, 공기에 노출되는 면적이 커 탄닌이 많은 레드와인에 딱이다.

다음은 화이트 와인을 위한 잔이다. 모양 자체는 보르도 잔과 비슷하지만 크기가 훨씬 작다. 화이트 와인은 차가운 온도로 즐겨야 하는데 잔이 크면 와인이 금방 미지근해진다. 화이트 와인 전용의 작은 잔에 자주 따라서 먹고, 와인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볼 부분이 아니라 다리부분을 잡으면 된다.

마지막으로 샴페인이나 스파클링 와인을 위한 잔이다. 입구와 볼이 좁지만 길쭉하다. 스파클링 와인의 생명인 기포가 잘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와인을 따르면 잔 바닥에서 여러 줄기의 거품이 올라가는 것을 잘 볼 수 있다.

/smahn1@metroseoul.co.kr

## 주말은 책과 함께

### 무기력은 내 탓이 아닌 뇌 탓

필자의 어머니는 성격이 불같아서 주변 사람들과 자주 다툰다(그래도 다행히 뒤끝은 없어 친구가 많다). 최근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여 있는 단체 카톡방이 하나 있는데 “애들아 보고 싶다. 잘 지내니?” 등과 같은 안부 묻는 말을 꺼내기만 하면 A라는 친구가 자꾸 단독방을 나가는 바람에 화가 치민 것이었다. 어머니는 눈앞에 카톡방을 들이밀더니 “너라도 열받겠지? 당장 전화해서 따져야겠어”라고 말하며 씩씩거렸다.

김영하 작가가 ‘대화의 희열’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 말을 인용해 어머니가 친구에게 항의 전화를 걸지 않도록 설득했다. “소설가 김영하가 ‘무명 시절에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 시기를 버텼냐’는 물음에 ‘젊은이들에게는 친구들 모임에 못 나가는 구간이 있다. 인생에서 고마웠던 사람들은 그 시기를 기다려줬던 사람들이다’라고 했었는데 어머니도 마음에 여유를 가지고 좀 기다려 보시죠”라고.

사실 비슷한 시기를 겪고 있어서 어머니 친구분의 이야기가 남 일 같지 않게 느껴졌다. 남 잘되는 꼴을 보고 있으면 배가 아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등 SNS를 일절 안 하는데, 요즘 모임에만 나갔다 하면 승전보가 들려와 괴롭기 짝이 없기 때문이다.

필자의 친구 B는 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의 일류 대학으로 포닥(박사후연구원)을 하러 간다고 하고, C는 지금 연봉이 8000만원인데 1억원을



### 아무것도 하기 싫은 사람을 위한 뇌 과학

가토 도시노리 지음/정현욱 옮김/갤리온

짜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경영 MBA 과정을 밟는다고 한다.

별로 안 친하면 상관이 없는데 전부 친척보다 자주 보는 막역한 사이라 속에서 천불이 난다. 친구들은 다 잘 나가는데 나만 뒤처지는 기분이 들어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 ‘그러면 너도 뭔갈 하면 되지 않느냐’고 제2의 자아가 다그친다.

그런데 막상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피곤해 침대에 누워만 있게 된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사람을 위한 뇌 과학’은 필자와 유사한 증상을 겪는 사람들이 읽으면 좋을 책이다.

일본 최고의 뇌 전문의인 저자는 “무기력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문제”라며 “평소 잘못된 생활 습관이 뇌 기능을 저하시켜 좀처럼 몸과 정신에 활력이 돌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224쪽. 1만4800원 /김현정 기자 hjk1@

### 해파랑길에서 길 찾기

강천 지음/시간의물레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이 혼란에 빠졌던 시기에 저자는 인생길을 찾는 구도자의 마음으로 동해 바다로 훌쩍 떠난다. 작년 2~3월 사이에 26일에 걸쳐 저자는 강원도 고성군부터 부산광역시까지 해파랑길을 따라 걷는다.

주변의 자연 풍경과 명승지뿐만 아니라 그 속에 얽힌 전설과 현재 살아가는 사람



들에 대한 이야기를 사진과 함께 책에 담았다. 저자는 유치환의 시처럼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懷疑)를 구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증(愛憎)을 다짐 지지 못해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길 때, 저머나면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간다’는 심정으로 해파랑길을 걸었다고 고백한다. 480쪽. 2만5000원.

### 보호받고 있다는 착각

질러안 요크 지음/방진이 옮김/책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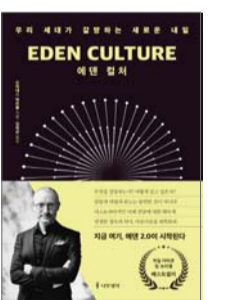
책은 거대 플랫폼의 검열이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저자에 따르면 플랫폼 대기업과 정부가 결합한 감시 자본주의가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은 한 나라의 정권을 바꾸기도 하고, 반정부민주주의를 철저히 고립시키기도 한다. 때론 억압받는 소수자 단체를 무자비하게 탄압하는데 도움을 주며, 세계 곳곳의 인권운동가들이 연대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책은 플랫폼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함으로써 자사에 이익이 되도록 강대국과 동맹을 맺은 방법과 그들이 개인 데이터를 수집해 기업의 이익으로 연결시켜 우리의 권리가 어떻게 훼손됐는지를 낱알이 까발린다. 440쪽. 1만9800원.



### 에덴 걸치

요하네스 하르름 지음/김희상 옮김/나무생각

인류의 삶은 지나치게 복잡해졌다. 실재 없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는 삶의 터전을 잃고 의미 없이 휩쓸려 다니다. 사람들은 기계의 부품에 지나지 않는 지금의 삶을 원했을까? 인류가 꿈꾼 이상이 소외와 갈등이 극도로 치닫고 희망까지 고갈된 지금의 모습일까? 인간다움을 잃고 기계의 들러리가 된 인류의 미래는 암울하다. ‘에덴’은 상처받은 우리 세대가 갈망하는 미래를 의미한다. 사람들은 심장이 약동하는 세계, 서로 연결되고 의미가 충만하며 화해와 너그러움이 가득한 세계를 원한다. 책은 인류의 정원을 활력 있게 유지하는 세 가지 영양소 ‘결속’, ‘의미’,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새로운 내일을 제안한다. 496쪽. 2만3000원. /김현정 기자



## 뉴스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中, 대만 파인애플 이어 우력바리 수입 금지... 농어민 생계 위기  
▲WHO, 원숭이두창 ‘비상사태’ 선포 여부 논의 /사진 뉴시스

▲지진 피해 아프간, 국제사회 지원 호소  
▲JP모건, 금리 급등에 모기지 파트 직원 대거 해고



▲EU, 우크라이나·몰도바에 후보국 지위 부여 예정  
▲노벨평화상 수상자들, 우크라이나 지지 방문 /사진 뉴시스